

[북 스]

어린이 책꽂이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강철왕 카네기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이끌고 미국 경제를 발전시킨 강철왕 카네기의 삶을 그린 위인전.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부를

일군 후 사회복지 위해 재산을 환원한 그의 기부는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도서관에 간 사자=어느날 도서관에 사자가 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책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도서관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 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된다.

(웅진즈니어·9천500원)

▲꽃이 피는 아이=온몸에서 꽂이 피어나는 주인공 소년 링크 보와르니 장애를 극복하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장애를 소재로 한 우울한 분위기의 책들과 달리 산뜻한 일러스트로 이션을 걸친 스토리가 경쾌한 느낌을 준다.

(느림보·8천500원)

▲노란별=평화와 평등을 실천했던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유대인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나치군 대가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하자. 크리스티안 왕은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든 덴마크 백성은 하나'라며 다같이 노란별을 달자는 뜻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해와 나무·8천500원)

▲건축물에 얹힌 12가지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우리 전통 건축문화재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그 건축물에 얹혀 있는 역사를 들려 준다.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꽉히는 부석사 무량수전 등에 얹힌 흥미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린이 작가정신·9천500원)

지름 21.2cm 다뉴세문경에 1만3천개 선 어떻게 새겼나

한국 7대 불가사의 이종호 지음

기원전 3세기 필론이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였다. 필론이 언급한 바빌론의 세미라미스 공중정원 등 7가지 불가사의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 뿐이다.

건축공학과 과학 전공자로 이미 '세계 7대 불가사의' 등을 폄하 바 있는 이종호씨는 우리 선조들도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유산을 남겨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전공을 살려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그가 폐낸 '한국 7대 불가사의'는 천문학, 청동기 문명, 철기문명, 인쇄술, 함포 전술, 문자 등 역사의 지평을 넓힐 유산을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틀과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1960년대 충남지역에서 발견된 국보 141호 '다뉴세문경(多紐細紋鏡·잔무늬 거울)'은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거울 뒷면의 무늬는 동심원과 삼각형, 사각형을 활용한 뛰어난 미적 감각으로 칸탄을 받아왔다.

다뉴세문경의 지름은 고작 21.2cm.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 무려 1만 3천개의 선이 3mm 간격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다. 종이에 그린다 해도 쉽지 않았을 작업을 확대경과 정밀한 제도 기구가 없었던 기원전 4세기에 선조들은 어떻게 청동을 녹여 주물을 만들어냈을까.

다뉴세문경의 아름다움과 불가사의함은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매료시켰고 국내외 많은 인재들이 쇠첩단 기술을 총동원 수차례 복원작업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2006년에야 성공한 것을 보면 기원전 4세기 조상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 중국을 상대로 거듭 승리를 거두고 대륙을

호령할 수 있었던 건 주력부대인 '개마무사(鐵馬武士)'의 역할이 커다. '개마'는 기병이 타는 철갑옷을 입힌 말을 이르는 것으로 말과 기사 모두 강철갑옷을 입은 개마무사 1인당 최소 70kg의 철이 소요됐다.

수양제가 이끄는 중국의 4만 대군을 무찌른 500명의 개마무사를 가능케 한 고구려의 철기문명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저자는 그밖에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나리경', 세계 최초의 함포(艦砲) 해전으로



청동기 시대의 불가사의 다뉴세문경.



천문학·인쇄술·함포 전술·문자…

'과학 유산' 통해 민족 우수성 확인

기록된 레몬토 해전보다 190년이나 앞선 시대에 화포를 선박에 장착해 왜구를 물리쳤던 '고려 수군의 함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8개의 문자 체계로 이루어진 '훈민정음', 금과 육으로 상감한 '신라의 황금 보검', 기원전 3천년경부터 천문을 관측했음을 보여주는 '고인돌 벽화' 등을 '한국의 7대 불가사의'로 꼽았다.

재미있는 정보 하나. 스위스의 베버가 설립한 'N7W (New 7 Wonders)' 재단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 7대 불가사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피라미드를 포함한 만리장성, 알코르바드, 타지마할 등 모두 21개 후보가 올라와 있으며 오는 7월7일 오전 7시 7분 결과를 발표한다.

(역사의 아침·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태주의 놀이 몸소 실천한 '노리단' 이야기

일하며 논다, 배운다 김종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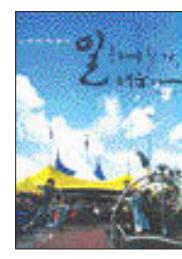
단장 김종휘씨 등이 쓴 '일하며 논다, 배운다'는 스스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상한 악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21세기 풍물隊'로 표현하는 '노리단'의 이야기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하자센터에서 생겨나며 150여회의 공연과 1천여회의 워크숍을 통해 생태주의 놀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노리단'은 공연단,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센터, 악기발전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작곡가, 배우, 설치예술가, 사운드 디자이너, 악기제작자와 같은 전문역 종사자는 물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학부모 등 8~40살 까지 3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독특한 문화공동체다.

1부 '노리단과 만나기'에서는 '학교이자 회사이며 공방'으로 돌아가는 노리단의 통합적 조직 방식과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는 단원들의 이야기가 사례 별로 묶여 있다. 2부 '노리단과 놀기'는 이들만의 독특한 놀이법을 소개한다. 노리단 영상 모음 DVD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민들레·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황금 보검.

카뮈 삶 이면에 숨어있는 내적 모습 파헤쳐

카뮈, 지상의 인간 로트먼 지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사망한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빈민촌에 사는 할머니와 벙어리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 철학교수가 되려 했지만 결핵 때문에 포기하고, 소설을 써 노벨문학상까지 탄 천재 문학가. 점령국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불의의 교통사고로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부조리'한 인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1913~1960)의 이야기다. 미국 출신 전기작가인 허버트 R. 로트먼이 1979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카뮈, 지상의 인간'(전 2권)이 1997년 개정판을 토대로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저자는 카뮈의 극적인 삶 이면에 숨어 있는 내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뮈와 만나기도 했던 저자는 전기를 통해 카뮈의 내면을 철저히 파헤친다. 카뮈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에 대한 묘사들은 프랑스 첫 출간 당시 카뮈의 상속자들로부터 '비밀공개' 혐의로 출판금지 소송을 당해야 했을 정도. (한길사·각권 2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황토시장 영화시흥 www.ja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점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앞)

1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愛)(15세)

2관 1번가의 기적(16세)/나비효과2(15세)

3관 쓴다(15세)

4관 넘버23(15세)

5관 페인티드 베일(12세)/리틀러너(12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15세)

7관 300(18세)

8관 일루셔니스트(15세)

9관 수(18세)

10관 300(18세)

* 노 sticky 300(18세)

* 흰 이별(15세)

1588-7941

콜롬버스 해밀턴(17세)

전체 상영점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

1588-7941